



3 월의 낙스(NAKS) 소식

[특별기획] 개교 45 주년 기념학교 소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설립배경과 역사(1975~2021)



교 장 남 일

오래전 발간된 초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지의 '역사편'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975 년에 보스턴시 근교에 위치한 뉴턴시의 뉴턴센터에서 시작하였다. 초대 안창수 교장에 이어 백린 선생님이 2 대 교장을 맡으셨는데, 당시 학부모회, 학생은 30 명, 학급수는 3 반, 교사는 최영방, 차진선, 양광자 선생님 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가르쳐야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교육이념으로 시작했다. 한국학교가 있어야 하고 한글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민족이 살아남고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또한 한국 문화와 전통을 유지 발전 계승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학교 설립 이유에 대해 적고 있다.

작고하신 백린 2 대 교장 선생님께서는 “한국 학교는 전통을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회 주일학교와는 다르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 배경이 유교 배경이지만 점차 기독교 정신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랑의 전통 위에서 문화를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미국에서 재미 한국 미국인으로 살 때도 우리 문화를 버리지 않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3 대 김영집 교장, 4 대 황성미 교장에 이어 1999 년부터 현재까지 필자가 5 대 교장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설립 Pomroy House, Newton



2 차 학교건물 이전 뉴턴 센터의 루터란 교회



3 차 이전 렉싱턴 성요한 감리교회



4 차 이전 렉싱턴 Jonas Clarke 중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개교 후에 열악했던 재정과 녹록지 않은 현실로 인해 그동안 학교 건물을 다섯 번이나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두 용기를 잃지 않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사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눈물 어린 노력과 보스턴 총영사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후원자분의 정성 어린 격려와 후원이 큰 힘이 되어 오늘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로 우뚝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긴다. 개교 45 주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저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졸업생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른 한글, 한국 문화 및 역사 교육

차세대 리더로 자라는 우리 2 세들의 올곧은 정체성 확립

현재의 교사, 장차 이어갈 차세대 교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연구...

앞으로 개교 50 주년, 100 주년을 향해!



5 차 이전 2000 년 9 월부터 현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전경

개교 45 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여러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겠으나 필자가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기억 속에서는 2005 년도 개교 30 주년 행사를 기념하며 ‘도산 안창호 선생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전교생이 참여하여 대하드라마 수준의 무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를 잊을 수 없다. 2015 년에는 개교 40 주년을 맞아 전 세계 1,500 여 한국 학교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모든 선생님과 전교생이 한 학기 동안 모두 참여하며 만든 한국 역사박물관을 개관했을 때, 그리고 광복 70 주년을 기념하며 그해 졸업식 때 선생님들이 학교 강당의 무대에서 모두 열창하던 순간이 큰 감동으로 남아있다.

또한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기초 1 과정' 해님반 신입생으로 입학식에 참석했던 3 살짜리 어린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고급과정 백두반 10 학년을 마치는 졸업식. 10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토요일 아침마다 한국학교에 데려다주신 부모님과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자기를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하다며 울먹이며 졸업생 답사를 전하는 순간, 부모님들과 모든 선생님이 모두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가장 흐뭇하고 감동적인 순간들로 남아 있다.



성인반 학생들이 세배를 하고 있다(2020 년 1 월).



기초 4 과정반 '무궁화 만들기' 수업 모습

1975 년 개교 초창기에 3 개 반, 30 여 명의 학생과 세 분의 선생님이 시작했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45 년이 지난 **2020 년에는 51 개 반과 500 여 명의 학생과 100 여 명의 선생님이 재직하는 대규모의 학교로 성장했다.** 또한 많은 졸업생들이 10 학년을 마치고 한국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12 학년 때까지 보조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보스턴 근교의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들도 토요일마다 한국 학교에 나와서 후보조 교사로 봉사를 하며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는 학교로 발전했다.

지난해 2 월 말부터 갑자기 불어 닥친 COVID-19 으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 학교들조차 휴교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수업 운영’에 관한 연수와 뉴잉글랜드 지역 교사 연수회 때 ‘온라인 수업에 관한 기술적인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 덕분에 3 월 첫 주부터 다양한 온라인 수업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수업 결손 없이 2020 년과 2021 년 학사일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학생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주최 ‘독도는 우리 땅’ 삼행시와 독도작품 공모대회 시상식

개교 45 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모든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발전해서 앞으로 개교 50 주년, 100 주년을 향해 가는 저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Korean-American 차세대 리더로 자라는 우리 2 세대의 올곧은 정체성 확립 교육과 바른 한글, 한국 문화 및 역사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또한 1 세대, 1.5 세대 및 2 세대는 물론 장차 3 세대, 4 세대 차세대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연구하여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 달의 연구] 교사가 교사에게 묻다.

키보드보다 더 강력한 펜



뉴라이프 한국학교 교사 김진령

바야흐로, ‘온택트(On tact)’의 시대가 열렸다.

온택트(On tact)는 Untact 와 On 의 결합단어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엔 언택트(Untact)시기의 비대면 사회를 맞이하는가 싶더니, 바로 온택트(On tact) 시대로 전환하여 서로를 다시 찾기 위한 길을 온라인상에서 마련하기 시작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뤄놓은 일들은 실로 대단하다. 모든 교사들은 대면 할 수 없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익혀야 했으며, 필요한 교육자료를 전부 파일화 해야 했다. 수시로 배워야 했던 어플리케이션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손글씨로 답을 적어서 내면, 교사가 일일이 채점하던 얼마 전까지의 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이 설령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최대한의 접촉을 줄여야 하니, 교사들은 온라인으로 가르치던 수업방식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고, 학생들의 피드백도 온라인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미 많은 한국학교 아이들이 종이와 펜 대신 컴퓨터 화면과 자판에 의존해 숙제를 해결하고 있다. 마우스로 몇 번 클릭하면서 답을 고르고, 한글자판을 곧잘 익힌 아이들은 주관식 문제의 답을 타이핑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선생님들은 평가가 빨라서 좋다. 컴퓨터가 금방 통계를 내주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글씨로 쓴 답을 못 알아봐서 인상을 찡그릴 일도, 누가 글씨를 예쁘게 잘 썼는지 칭찬해 줄 일도 점차 없어진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것일까?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키보드 타이핑보다 훨씬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손으로 연필 혹은 펜을 움직이는 운동 제어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뇌의 인지발달을 돕는다고 말한다.



2014 년 LA 에 있는 캘리포니아대(UCLA)의 ‘키보드보다 더 강력한 펜(The Pen Is Mightier Than the Keyboard)’ 라는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각각 노트북과 펜·종이로 받아적게 하고, 강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 내용과 개념이해 문제를 풀게 했다. 그랬더니 **노트북으로 메모를 했던 참가자들은 사실 내용과 개념이해 테스트 모두에서 펜·종이로 필기했던 참가자들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노트북으로 강의 내용을 타이핑하는 것은 손글씨보다 더 많은 내용을 빠르게 옮겨 적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강의기록(verbatim notes)’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글씨로 쓰면서 받아적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정보들을 간추려서 그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NTNU,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심리학과와 발달 신경 과학 연구소 연구팀이 학습 시 필기의 중요성에 대한 고밀도 뇌파 연구 결과를 심리학 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사이콜로지(Frontiers in Psychology)’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디지털 디바이스가 점점 전통적 필기를 대체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의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평균 12 세 아동과 24 세 청년 각각 12 명에게 키보드 타이핑과 필기체 필기, 드로잉을 하게 하여 이때의 고밀도 뇌파도를 조사 기록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릴 때 일수록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보다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직접 손으로 글쓰기를 할 경우에는 미세한 손동작을 통해 제공되는 시각, 운동 명령 및 운동감각 피드백 등을 경험하여 동일한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되는 키보드 타이핑보다 더 많은 두뇌 자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컴퓨터로 처음 한글 자판을 눌렀을 때 느꼈던 희열..

밤새 고민하다 내준 ‘너를 좋아하는 이유’를 적은 고백 편지만은 못하다."

‘수인재 두뇌과학 목동센터’ 박은아 소장은 “**손글씨 쓰기는 타이핑에 비해 뇌의 다양한 영역의 활성화 및 조화가 필요하다.**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글자를 처리하면서 소리를 내어 발음을 연상하고, 정확한 맞춤법 하나하나를 인지해야 하고, 글자들 간의 크기를 맞추면서 글자의 위치, 방향, 각도, 자음과 모음의 조화 등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이는 주의집중을 비롯한 인지 과정에 관여하면서 특히 글자 생성에 관여하는 하위전두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과 대상 글자를 비교하는데 필요한 전측대상회 활성화, 글자처리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방추상회 등의 뇌의 영역이 관련되어 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손글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판서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연필을 바르게 쥐는 법, 글씨를 잘 쓰기 위해 한글을 순서에 따라 써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온통 시각적인 교육자료로 아이들의 인지 활동을 시선을 빼앗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 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컴퓨터와 태블릿이 생활화된 만큼, 연필이나 펜으로 종이에 직접 손글씨를 쓰는 일은 갈수록 드물어진다. 학교의 칠판도 대형 스크린이나 프로젝터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정작 글씨를 써야 할 상황이 되면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쓰는 연습이 덜 되어서이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어찌나 정성 들여 칠판에 판서를 하셨는지, 지우개로 지우면 자국이 나 잘 지워지지도 않았다. 한가득 정갈한 필체로 칠판을 글씨로 메우시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반 전체가 필기를 하기에 바빴다. 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던 한창때는 서로에게 어울리는 편지지를 정성껏 골라 최대한 틀리지 않게 편지를 써 내려갔다. 한번은 동글동글한 글씨체가 예뻐 선배 언니의 필체를 따라 해 보려고 애써서 종이에 옮겨쓰곤 했던 기억도 난다. 컴퓨터로 처음 한글 자판을 눌렀을 때 느꼈던 희열도 기억하지만, 밤새 고민하다 내준 ‘너를 좋아하는 이유’를 적은 고백 편지만은 못하다.

이건 엄마의 글씨였고, 저건 아빠의 글씨였음을 어린 나이에 알아봤던 걸 보면 글씨에는 분명 사람의 성격과 인격,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하다. 사람마다 다른 손글씨는 어느 순간 컴퓨터의 폰트(글꼴)로 변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정감을 안겨준다. 만화가 박광수가 쓴 <광수생각>은 1990 년대 말에 엄청나게 히트했던 만화였다. 그림과 함께 나온 독특한 손글씨가 ‘광수체’로 변해 우리들 직장에선 아이들 교육계획안까지 그 폰트를 애용하곤 했다. 한글 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조체를 안 쓰고, 광수체 정도는 써 줘야 세련되고 유아 친화적인 교사라 자조하던 때가 있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난다. 요즘은 폰트로 변한 글씨체가 너무 많아서, 새로 나온 폰트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겠다.

발달된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과 별개로 필기를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현장에 돌아갈 날만 손 꼽는 교사들이 현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전통적으로 종이와 연필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태블릿과 스타일러스 펜을 통해서라도 필기를 하자. 필기하는 것 자체가 뇌**



발달과 정서 발달,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교육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진령 선생님은 현재 낙스 <한국어 모범수업자료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 1 회 청소년 정체성 워크숍]

"나만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세계 속의 리더를 꿈꾸다!"



첫째 날(3 월 12 일) 강연자 윤영섭 박사(윗줄 오른쪽)와 공동 진행을 맡은 낙스의 '차세대교사 교육위원회' 위원들, 김선미 총회장(윗줄 가운데)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김선미, 이하 낙스)는 지난 3 월 12 일(금)~13 일(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리안 어메리칸(Korean-American)'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성공적인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견해를 펼치는 '제 1 회 청소년 정체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줌 웨비나(Zoom Webinar)와 유튜브(You Tube) 채널을 통해 미전역의 300 여 명의 한국학교 학생들, 교육관계자와 학부모의 참여로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은 그동안 **코리안 어메리칸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며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한국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개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재외동포재단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힘찬 첫 출발의 시작을 알리는 강연자로 에모리 대학(Emory University) 윤영섭 박사와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줄업 이나영 박사가 이틀에 걸쳐 열띤 강연을 펼쳤다.

첫째 날 강연에서 윤영섭 박사(Young-Sup Yoon, MD, Ph.D - Bruce R. Logue Chair Professor,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는 “Get Together and Get Ahead”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으로서 자신만의 능력이나 독창성의 계발은 물론,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선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세계화에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둘째 날(3 월 13 일) 강연자 이나영 박사

이어 둘째 날 이나영 박사(Nayoung Louie, Ph.D - Director of Strategy, Neuraly)는 "How to find a job in the us"라는 강연을 통해 그 동안 본인이 많은 학생의 취업, 대학원 원서작성, 인턴십 준비를 도와주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의 성공적인 취업 및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Soft skill 과 Technical skill(스펙), 추천서 받는 방법, 네트워킹 하는 방법(How to network) 등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각 강연에 이어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Q&A 시간’ 또한 이번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내놓은 다양한 질문에 강연자들의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견해는 물론, 학생들 스스로가 함께 그 해답을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어떤 행사보다도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 선한 영향력 있는 리더
한국인으로서 자신만의 능력, 독창성의 계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조화로운 협력 "**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미래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닮고 싶은 자랑스러운 롤모델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에 직면해있다. 그 고민의 중심에는 **한국문화, 미국문화, 또 다른 제 3의 문화가 그들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함이 혼돈이나 불안정함이 아닌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진심 어린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이달의 명언

변화는 성장이다.



벨엘 한국학교 교장 오승연

여러분의 2020 년은 어땠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킨 2020 년 많이 들은 말은 "사라진 해", "시간을 멈추게 한 해", "생태계에는 전화위복이 된 해"이다. 그럼 교육자로 맞닥뜨린 2020 년은 과연 어땠을까?

2020 년 3 월은 나이,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전 세계를 낯선 세상으로 끌어드렸다. 달콤한 아침잠을 깨우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눈 비비며 일어나 등교를 위해 꾸역꾸역 아침을 먹던 학생, 단 1 분이라도 포근한 침대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이불 밖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일어났던 많은 직장인에게 너무나도 낯선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우리 생활의 동반자로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비대면'이라는 단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교사와 학생이지 싶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한 경험이 전부 또는 대부분인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을 위해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 모두 했을 것이다. 대면과 비대면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는데 거기에 수업하라니 이 변화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담담히 받아들였고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수업 도구 사용법을 익혀 수업에 적용하며 자발적으로 변화를 끌어내는 교육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코로나시대 이후 교실에서 진행될 한국학교 수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인류 역사에 남을 시대로 인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며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모든 교사를 응원한다.

교육자로 맞닥뜨린 코로나시대

걱정과 두려움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 전문가

모든 교사를 응원한다.

*오승연 선생님은 현재 낙스 <한국어 모범수업자료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알림사항

1. 제 39 회 낙스 창립 40 주년 기념 온라인(비대면)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주최하는 '제 39 회 NAKS 창립 40 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가 100%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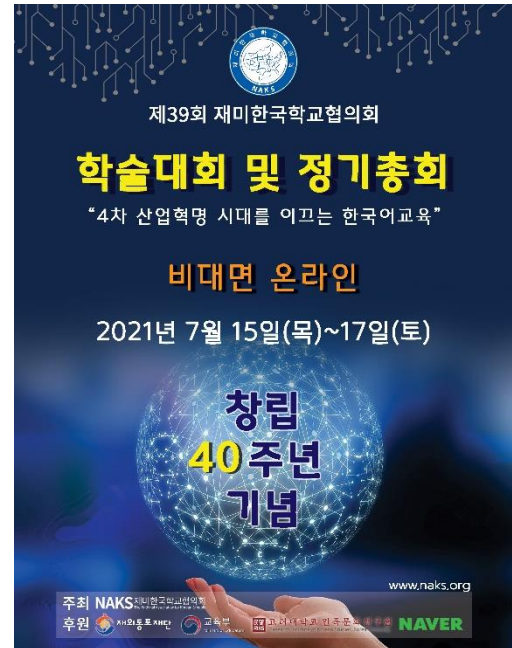
창립 40 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만큼 NAKS 회원교 소속 수천 명의 교사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주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한국어 교육**

2021 년 7 월 15 일~17 일 (사이버 공간)

'학술대회' 온라인 등록 바로 가기

---> <https://www.naks.org/jml/library-history-culture-material-by-level/2046-3-1>



2. 2021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중연수



국립국어원과 협업하여 실력 있는 강사님들을 모시고 교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연수회의 주제는 '비대면 한국어 교실 운영의 실제' 입니다. 교사가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자료 활용법 및 <전 세계 유아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 교재 소개 및 활용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며 또한 전문가의 평가를 듣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수회가 될 것입니다.

***일시 및 장소: 2021 년 7 월 13 일(화)~15 일(목) /온라인**

***주제: 비대면 한국어 교실 운영의 실제**

- 맞춤형 강의 제공을 통한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
- 사전 과제, 강의, 피드백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실제적인 교수 역량 제고
- 모둠 활동을 통한 한국어 교사 간 상호 교류 및 연결망 구축

3.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고조선>

우리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국가 고조선. 오늘을 살아가는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본격적인 역사교육의 출발점으로서 한국인의 뿌리를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조선'에 관한 다양한 수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가 고조선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조선' 수업자료 바로 가기 ----> <https://www.naks.org/jml/library-history-culture-material-by-level/2690-2021-03-10-04-13-06>

